

탈북자

脱北者



<The North Defectors> Presented by Theater Playground Shiim (KR), approaching theatre (TW)
2017/ 06/17 - 6/25 | Theater Playground Shiim, BUSAN

우리는 모두 ‘탈북자’다!

‘탈북자’라는 단어는 본래 ‘충성’과 ‘배반’이 합하여진 뜻을 가진다. 이 단어가 《탈북자》라는 연극에 출현할 때는 1950년대 한국전쟁(6.25전쟁) 발발 이후 지금까지 뚜렷이 남아 있는 냉전 기억을 대표한다.

우리는 모두 ‘탈북자’다! 내가 하려는 말은 이렇다. 이미 60여년이 지난 한국전쟁의 역사가 우리의 기억 속에서 한번도 사라진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물론 그 역사는 ‘자유주의’적 형식으로 변신하여 당대 현실에 다시 등장하기도 한다. 우리가 익숙하게 ‘정의’로 그 전쟁을 해석할 때, 그 전쟁은 동족상잔의 대비극을 대표할 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기세 등등하게 ‘정치적 올바름’의 한 권에 서도록 한다.

38선은 악귀가 큰 싸움을 벌였던 신화로 동아시아에서 유통되어 왔다. 이는 우리의 상처 입은 기억이 천년불사의 냉전 유령처럼 38선의 공중에서 떠나지 않고 배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오늘밤 부산에서의 공연으로 우리들은 함께 38선이 상징하는 냉전의 역사적 기억으로부터 벗어날 것이다!

왕묵림(王墨林) 2017년 6월 14일 부산에서

我們都是「脱北者」!

「脱北者」一詞，原本具有「效忠」與「背叛」合一的意思。然而當它在《脱北者》劇場裡出現時，卻代表著自五〇年代韓戰（6.25戰爭）爆發以來，我們至今仍在鮮明狀態下的那份冷戰記憶。

我們都是「脱北者」！我想要說的是幾乎已過了六十幾年的韓戰歷史，從未從我們的記憶中消失，即使它已變身成為一種「自由主義」的形式，而重現於當代。在我們習慣用「正義」來詮釋那場戰爭時，它雖代表著一場兄弟相互殘殺的大悲劇，但也讓我們理直氣壯地站在政治正確這一邊。

三八線變成流傳於東亞的一則神魔大戰的神話，意味我們的傷痛記憶如同是千年不死的冷戰幽靈，繼續盤旋在三八線上空揮之不去。

在今晚釜山的演出，就讓我們一起脱逃出三八線所象徵的冷戰史記憶吧！

王墨林 2017/6/14於釜山

식민지, 냉전, 독재,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등 아시아의 근현대사는 아시아의 많은 민중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겨 놓았다. 누군가는 죽고, 감옥에 갇혔으며, 연좌제로 인해 살길이 봉쇄당했으며, 투옥되었고, 물리적으로 상처 입었으며, 정신적으로도 그러했다. 이렇게 치유되지 못한 상처들을 안고서 많은 사람들은 현재 신자유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냉전과 독재를 거치면서 일어났던 많은 학살들은 첨단화한 지금의 사회에서 거의 잊혀져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유대인 학살과 다르게 아시아에서의 학살은 아직도 그 실체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학살을 자행했던 자들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학살의 기억은 아시아 민중들의 무의식 속에 깊이 박혀 있을 수밖에 없다.

근현대사를 공유하고 있는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 그리고 일본의 예술가들이 학살의 기억들을 신체 퍼포먼스, 비디오 아트, 실험음악, 설치 미술 등으로 무대 위에 구현함으로써 학살이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를 공유하고자 하며, 제목인 ‘탈북자’는 단순히 북한을 탈출한 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학살을 자행한 권력자에 대한 저항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한 개인으로서 현재도 진행 중인 보이지 않는 학살에 대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한 질문을 담고 있다.

궁窮 극장 (approaching theatre)

고준요(高俊耀)、정윤진(鄭尹眞)

이전에 왕목림 감독의 《안티고네》와 《밤으로의 긴 여로》에 참여하였을 때, 연출을 맡은 왕목림 감독은 일본의 노(能)와 가부키(歌舞伎) 및 경극의 표현미학을 제시하면서, 심리적 감정의 과장을 통해 배역을 표현하지 않도록 배우들에게 고도의 자각적 통제를 엄격하게 요구하였다. 행동의 선은 절제가 있어야 했다. 미국의 방법 연기(Method Acting)에서 취하는 소소한 일상의 동작은 절대 취해서는 안 되었다. 왕목림 감독은 ‘사이’의 개념을 강조한다. 배우들은 반드시 자신과 배역 사이, 황홀과 냉철 사이, 그리고 진실과 허구 사이를 오가야 한다. 그렇게 하여 변신(變身), 현신(顯身), 화신(化身)의 삼층 변태 단계를 달성한다.

이번에 준비한 《탈북자》는 왕목림의 표현 미학의 사유를 한 단계 발전시켰다. 리허설 기간 동안 ‘유령술’을 표현방법학으로 삼아, 동방의 신체 개념에 대한 이해, 기의 순환 및 ‘질식법’ 활용을 연결 지었다. 동시에 신체와 사물의 즉흥적 행위를 발전시켜, 행위예술의 개념으로 화신론을 변증법적으로 표현하였다. 신체는 표현에 종속될 수 없으며, 반드시 자신의 존재적 주체성을 찾아야 했다. 이로 인해 배우와 배역은 상승효과 만들며 병행하는 두 개의 주체가 되고, 나오면서 들어가고, 몰입하면서 났을 잃고, 관계하면서 소외된다. 우리는 《탈북자》에서 이와 같은 도전을 마주했다.



在我們以往參與《安蒂岡妮》以及《長夜漫漫路迢迢》過程中，王墨林導演時以日本能劇、歌舞伎與京劇表演美學作為提示，嚴格要求演員以高度自覺控制，不可濫情地以心理情感渲染推動腳色；行動線條亦須節制，諸如美國方法演技（Method Acting）的瑣碎日常動作絕不可取。王墨林導演強調「間」的概念，演員必須往返於自身與腳色之間，恍惚與清醒之間，以及真實與虛構之間，達成變身、顯身、化身的三層蛻現階段。

此次《脫北者》發展，王墨林延續其表演美學的思索，在排練初期即提出以「幽靈術」為表演方法學，串聯起東方身體概念的理解，氣的運轉與「止息法」的運用。同時發展身體與物件的即興行為，以行為藝術的概念來辯證表演化身論。身體不可用於服務表演，身體必須找到自身存在的主體性，因此，演員與角色是並駕齊驅的兩個主體，既出且入，專注又出神，涉入又疏離。這便是我們在脫北者面對的挑戰。

高俊耀、鄭尹真 / 窮劇場



작, 연출: 왕목림 王墨林 (대만)

음악: 왕명휘 王明輝 (대만) / 영상: 우수이 區秀詒 (말레이시아)

무대디자인: 요시카와 소이치 吉川聰一 (일본)

출연: 고준요 高俊耀 (말레이시아), 백대현 白大鉉, 홍승이 洪承伊, 정운진 鄭尹真 (대만)

주최: 연극놀이터, 섬

공동 제작: 대만 Approaching Theater

협력 극단: 실험극단 '뽀', 대만 Body Phase Studio

후원: 아말, 비주류사진관, Taiwan Arts and Culture Foundation, Department of Cultural Affairs Taipei City Government, Taiwan Contemporary Performance Connection

導演、劇本：王墨林（台灣）／音樂總監：王明輝（台灣）

演員：鄭尹真（台灣）、高俊耀（馬來西亞）、洪承伊（韓國）、白大鉉（韓國）

美術構成（舞台、燈光）：吉川聰一（日本）／影像視覺：區秀詒（馬來西亞）／攝影：許斌（台灣）

製作人：王永宏（台灣）、白大鉉（韓國）／製作助理：崔世希（韓國）

劇本翻譯：延光錫（韓國－中韓語翻譯）、洪京枝（韓國－韓日語翻譯）

韓文口譯：李姿瑩（台灣）、馮筱芹（台灣）、林芊蓉（台灣）、丁一真（中國）

日文口譯：申芳寧（台灣）、金池研（韓國）

導演助理：劉雅芳（台灣）／舞台技術指導：許宗仁（台灣）

製作顧問：楊智強（台灣）／觀察員：黃佩蔚（台灣）

主辦單位：釜山－SHIM劇團、台北－窮劇場

贊助：財團法人國家文化藝術基金會、台北市政府文化局

特別感謝：身體氣象館、CO3表演藝術國際交流平台、表演藝術聯盟、亞洲製作人平台